

5. 전설

1) 곧은골(直谷)

마룡산(馬龍山)에서 발원(發源)되어 흐르는 작은 내(小川)를 따라 냇가에 곧게 형성된 마을이라 하여 곧은골(直谷)이라 부른다.

2) 마룡산(馬龍山)

평해읍과 후포면 지역의 최고봉(最高峰)[406m]으로 산세(山勢)가 웅대하고 수려하며 마치 용마(龍馬)가 달리는 모양과 같다 하여 마룡산(馬龍山)이라 하였다.

3) 만산(萬山)

마룡산(馬龍山) 아래에 있다 하여 그 산 이름에 따라 마을 이름을 지었는데 마룡산(馬龍山)의 음(音)이 변하여 만산(萬山)이라 하였다.

4) 장기암(將棋岩)

마룡산(馬龍山) 산정(山頂)에 있는 평평한 암반(岩盤) 위에 장기판(將棋盤) 모양이 있는데, 선인(仙人)들이 여기서 장기를 두었다는 전설이 전한다.

제3절 금음3리(金音三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북쪽은 금음1리고, 서쪽에는 암산(岩山)이 있으며, 남쪽은 동해(東海)다.

2. 마을의 역사

1944년에 금음리에서 분구(分區)되어 금음3리로 되었다. 1953년 1월 19일[면조례 제15호]에 평해면 후포출장소 관할로 되었다. 1980년 12월 1일[대통령령 제10050호]에 평해면이 읍(邑)으로 승격되어 평해읍 금음3리로 되었으며, 1986년 3월 27일[대통령령 제11874호]에 후포출장소가 면(面)으로 승격되어 후포면 금음3리로 되었다. 마을회관은 1998년에 처음 건립되었으며, 현재 새로 신축하고 있다.

3. 가구 분포

총 120세대가 거주하며 김해 김씨(金海金氏)가 주성을 이루며, 경주 이씨(慶州李氏), 평택 임씨(平澤林氏), 밀양 박씨(密陽朴氏) 등 다양한 성씨가 분포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동제(洞祭)

음력 9월 9일과 10월 15일에 성황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별신굿은 풍어제(豐漁祭)로 5년마다 한 번씩 한다.

5. 전설

1) 비학산(飛鶴山)

마을 뒤에 있는 깎아 세운 절벽으로 이루어진 산(山)인데, 후포, 삼울 등지에서 바라보면 마치 학(鶴)이 날아가는 형국이라 하여 산 이름을 비학산(飛鶴山)이라 하였다.

2) 여심이(也音)

신라 말기에 마을 가운데에 대장간이 있어 낮, 도끼 등을 만드는 쇠망치소리가 밤낮 끊이지 않고 난다고 하여 야음[也音:여심이]이라 하였고, 주위의 산세(山勢)가 야자형(也字形)이라 하여 불린 이름으로 전한다.

3) 움바위

마을 앞에 있는 큰 바위인데, 방파제(防波堤) 역할을 하며 마을의 상징적인 큰 바위란 뜻에서 움바위라 하였다.

제4절 금음4리(金音四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북쪽은 깎아 세운 듯한 산을 뒤로 하고, 동쪽은 동해에 접하고 있으며, 서쪽은 영덕군 병